

경희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 I)

[10월 3일(일) 오후]

전형유형 ()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아래의 모집단위별로 배점이 다르니 논술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영어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의상학

국제캠퍼스 : 인문·예체능계 전 모집단위

B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무역학, 언론정보학, 경영학, 회계·세무학, Hospitality경영학, 관광학, 자율전공학, 한의예(인문)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 A:** B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군요. 선생님이 갖추고 있는 학식과 경험만으로도 분명 왕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훈적인 선례들과 유용한 조언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 자신도 이익을 취할 수 있을 테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 B:** 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자신을 위해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 A:**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직에 나가 봉사하시라는 것이지 노예가 되시라는 게 아닙니다.
- B:** 노예(servias)가 되라는 말과 봉사(inservias)를 하라는 말은 음절 하나 차이지요.
- A:**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나는 여전히 선생님께서 공직에 나가시는 것이 많은 이들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B:** 내 천성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나는 정말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궁정에 있는 그 어느 대신들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C:** B선생, 어느 정도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생의 재능과 정열을 공적인 문제에 쏟아 부을 수 있다면, 분명 선생이 가진 존경할 만한 철학적 태도와 잘 어울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선생은 군주의 이상적인 개인 고문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에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12월 글 게시 이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 환율 방어 정책을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 씨가 쓴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그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다.”며 “단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해진 시점에서 나온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규정한 법 위반 구성 요건, ‘허위 사실 인식’, ‘공익을 해할 목적’을 엄격히 해석한 점이 그렇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인터넷 공간에서 구속하거나 제약하려 할 경우 명백한 증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태를 겪으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실명제 강화 등 인터넷 공간 규제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법과 정책을 면밀히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악성 댓글 단속 등을 명분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까지 단속하여 처벌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자 과잉 대응이라는 것을 법원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과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모순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부작용

을 초래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 신장과 이윤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반대로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의 구비, 취약 계층의 고용 비율의 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 등의 요건은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막게 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기업이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 없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결과로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단지 인건비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호의적 인식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승인을 남발하여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가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기업 이외의 일반 기업에 취업하려는 자유의지나 새로운 일을 개척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포기하게 한다.

[라]

Picture a pasture open to all. It is to be expected that each herdsman will try to keep as many cattle as possible on the land for common use. Such an arrangement may work reasonably satisfactorily for centuries because tribal wars, poaching, and disease keep the numbers of both man and beast well below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land. Finally, however, comes the day of reckoning, that is, the day when the long-desired goal of social stability becomes a reality. At this point, the inherent logic of the common land remorselessly generates tragedy.

As a rational being, each herdsman seeks to maximize his gain. Explicitly or implicitly, more or less consciously, he asks, "What is the utility *to me* of adding one more animal to my herd?" This utility has one negative and one positive component.

1) The positive component is a function of the increment of one animal. Since the herdsman receives all the gains from the sale of the additional animal, the positive utility is nearly +1.

2) The negative component is a function of the additional overgrazing created by one more animal. Since, however, the effects of overgrazing are shared by all the herdsmen, the negative utility for any particular decision-making herdsman is only a fraction of -1.

Adding together the component partial utilities, the rational herdsman concludes that the only sensible course for him to pursue is to add another animal to his herd. And another; and another.... But this is the conclusion reached by each and every rational herdsman sharing a common land. Therein is the tragedy. Each man is locked into a system that compels him to increase his herd without limit—in a world that is limited. Ruin is the destination toward which all men rush, each pursuing his own best interest in such a society.

[마]

신자유주의적 경쟁의식이 21세기 대학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대학들을 이기적이고 이익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점차 상업화, 시장화 되고 있고, 교수와 학생들은 경제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 이는 대학에 이익 창출을 우선시 하는, 이른바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사회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사회봉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교육철학과 학문적 연구 역량을 지역 및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재결집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해결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공공선'이 되어야 한다. 비록 21세기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교육과 연구는 사회봉사적 활동 안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대학이 각 전공영역들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를 통하여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교육·연구·봉사 간 유기적 통합을 추구할 때 대학은 공공선으로서의 대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저소득계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하거나, 대학의 연구자가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거나 혹은 사회적 난제에 대한 성찰적 논의의 장으로 대학 캠퍼스를 사회에 개방한다면, 이는 단순히 그 해당 학생과 연구자 혹은 논의의 장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혜택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혜택인 것이다.

<문제 I-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어떤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30점, B모집단위 배점 20점]

<문제 I-2>

제시문 [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30점, B모집단위 배점 20점]

경희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Ⅱ)

[10월 3일(일) 오후]

전형유형 ()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아래의 모집단위별로 배점이 다르니 논술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영어학,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의상학

국제캠퍼스 : 인문·예체능계 전 모집단위

B모집단위

서울캠퍼스 :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무역학, 언론정보학, 경영학, 회계·세무학, Hospitality경영학, 관광학, 자율전공학, 한의예(인문) .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5천 년 전이나 1천 년 전에는 자연 속에 있는 위험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큰 위험이 되었다. 현대사회는 이런 자연 속 위험 요인에다 문명의 이기와 과학기술의 산물이 지닌 위험 요인까지 겹쳐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농약,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핵폭탄, 각종 유해 화학물질 따위 등이 그런 예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들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 이런 위험 요소 가운데 특히 식품 유해요소, 곧 식품 자체의 유해성분과 함께 유해첨가물,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따위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위험 인식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전자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돼지콜레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 가축 전염병이 돌더라도 평소처럼 이들 축산물을 먹는다. 반면에,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은 방사선(감마선)을 쬐 감자나 양파, 인삼 따위에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으면 사람도 가축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고 일반 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식품 파동이 생긴다. 이렇게 위험을 비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그 사회는 미래로 향해 나가지 못한다.

[나]

위험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면, 충격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에 의해서 위험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1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연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1.4개비를 피워서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은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이틀간 살고 공해로 죽을 확률, 제트기로 1천 마일을 나는 동안 사고로 죽을 확률, 좋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번 했을 때 죽을 확률, 핵 발전소 20마일 부근에서 150년간 살았을 때 방사선에 의한 암으로 죽을 확률과 같다.

그러나 위험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위험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배경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은 객관적인 위험 행위로 여겨지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기도 한다. 즉, 굶주림에 비하면 환경오염은 덜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위험,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위험,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 비자발적 위험이란 공해와 같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 위험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인 위험인 흡연보다 오히려 비자발적인 위험인 공해가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감추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위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공장의 폐기물 처리 소홀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인근에 위치한 고압 전선의 위험성 등이 더 많은 공공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상대방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가 풍부한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가 촉진되어, 상호협력과 이익이 증대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붕괴될 경우 사회 구성원 모두 피해를 당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사용에서도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결여되면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미국 연방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대체에너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74년 펜실베이니아 중부에 위치한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였고, 1978년 12월에는 스리마일 섬에 제2 원자로를 추가로 건립하였다. 그러나 완공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제2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미국원자력학회의 조사 결과 실제 누출된 방사능의 양은 병원에서 검진받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카터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는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미국 연방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제2 원자로를 폐쇄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는 이후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적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9년 9월부터 1983년 8월 사이에 스리마일 섬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전과 비교하여 우울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스리마일 섬 인근 주민의 우울증을 유발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방사능에 노출됨으로써 암에 걸릴 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인접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있었다. 주민들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 II-1>

제시문 [나]와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 비판에 근거하여 위험인식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20점, B모집단위 배점 30점]

<문제 II-2>

아래 표는 노동을 제외한 시설, 자본 등의 다른 조건이 동일한 공장 (갑), (을)의 직원 수와 총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다. 직원의 수가 80명으로 동일하였을 때 공장 (갑)과 (을)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풀이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시오. 이때 자료에 주어진 구간 내에서 총생산량은 직원 수의 일차 함수이다.

[401자 이상~500자 이하 : A모집단위 배점 20점, B모집단위 배점 30점]

	공장 (갑)		공장 (을)	
	직원 수 (명)	4	100	6
총생산량 (개)	21	165	20	230